

## 설득적 텍스트의 헤지 표현(hedging) 번역문제: 『뉴스위크』 영-한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신 진 원  
(부산대)

### 1. 서론

최근 몇 십 년간의 번역시장 확대로 번역가는 업무의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더 높아진 기대치를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번역가는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을 넘어 원천 텍스트 저자와 목표 텍스트 독자와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책임지도록 요구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 연구에서도 메시지의 효율적 전달 방식으로써 텍스트 생산자로서의 저자나 번역가의 태도나 독자와의 관계유지 방식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체계기능언어학의 기반이 되고 있는 언어의 메타기능 중 대인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을 번역에 적용한 연구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평가어이론(Appraisal Theory, Martin & White 2005)이나 메타담화(Metadiscourse, Hyland 2007)를 번역연구에 도입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sup>1)</sup>.

하지만 번역학에서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전히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 수도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텍스트 생산자의 태도나 독자와의 관계유지 방식에 관한 연구들 중에서 아직 영한 번역에 적용 되지 않은 헤지(hedge) 개념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헤지 표현이 번역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처리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헤지 개념이란 정의와 범주부터 그 논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마크카넨과 슈레더(Markkanen & Schröder 1989)의 정의를 바탕으로, 헤지 표현의 개념을 ‘화자 또는 저자가 발화에서 제시한 실체나 명제에 대해 판단을 유보하는 표현이나, 청자 또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에서 그 수행성이 완화된 표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헤지 표현의 전형적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예시 1>

- a. The meeting is led by sort of political people.
- b. It is, perhaps, a good reason why she chose to write in the first person.
- c. We regret to inform you that we cannot go there.

a의 ‘sort of’는 표현되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모호하게 만들어 명제적 내용의 판단을 유보하는 전형적인 헤지 표현 중 하나다. b의 ‘perhaps’는 명제에 대해 가능성이나 추측만을 제시함으로써 화자 또는 저자의 판단을 유보하는 헤지 표현으로 설명된다. c는 명제적 내용에 대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수행성을 보다 약화시켜 정중함을 목적으로 하는 헤지 표현이다.

그런데 최근의 번역학에서 헤지 개념을 적용한 사례들은 하우스(House 2006), 피산스키(Pisanski 2010), 크라니치(Kranich 2011)의 연구와 같이 대체로 b와 같은 정량적 분석이 용이한 저자의 명제에 대한 인식양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헤지 번역의 특성이나 총체적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

1) 평가어관련 영한번역연구는 마승혜(2011)와 이주리아(2011), 이창수(2009)의 연구를, 메타담화관련 연구는 김현아(2011)를 참고할 수 있다.

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연구들 중 프린스 외(Prince, Frade & Bosk 1982)와 신명선(2006)의 모형을 바탕으로 헤지 개념의 틀을 재구성하고 영한 번역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요인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헤지 표현이 하나의 언어 전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뉴스매거진의 칼럼을 대상으로 설득적 텍스트 번역에서 나타나는 헤지 표현의 유형과 그 기능에 대해 논의해 본다. 또한 번역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조사하며, 실제 번역문에 나타난 번역 전략들을 정리하고 그 전략과 관련한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헤지의 하부 유형과 기능

선행연구들의 헤지 표현에 대한 정의와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레이커프(Lakeoff 1973)에 의해 명제적 내용의 모호성과 관련한 의미론적 현상으로 처음 설명되었던 헤지 개념은 이제 언어의 대인관계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화용론적 그리고 수사학적 차원의 연구로까지 점차 확대되었다.

이런 확대된 개념으로 헤지 표현의 하부 유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명제적 내용’의 차원, ‘저자<sup>2)</sup>의 명제에 대한 책무’의 차원, 그리고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 2.1 명제적 내용의 차원

레이커프(1973)는 헤지를 “어떤 것을 보다 더 또는 덜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들(words whose job is to make things more or less fuzzy 1973: 471<sup>3)</sup>)”로 설

- 2) 헤지는 구어와 문어 표현에서 발생하며 그 대상은 화자와 저자, 청자와 독자를 상대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 문어 텍스트에서 헤지 표현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후 그 대상을 저자와 독자로 한정한다.
- 3) 레이커프는 헤지를 더 모호하게 만드는 단어뿐만 아니라 덜 모호하게 하는 단어까지 포함시켰다. 이 영역은 하이랜드(1998)의 모형에서도 헤지 개념 안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더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만을 헤지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본

명한다. ‘sort of’, ‘rather’와 같은 표현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프린스 외(1982)의 이분법적 분류 모형에서는 이 유형을 논평을 완화하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들로 정의된 근사값(approximators)으로 구분하였다<sup>4)</sup>. 이 범주는 다시 ‘대략어(Round)’와 ‘적응어(Adaptor)’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about’, ‘approximately’, ‘something around’와 같은 수적인 개념의 모호성과 관련 있고, 후자는 ‘somewhat’, ‘sort of’, ‘a little bit’과 같이 특정 범주로의 한정을 모호하게 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신명선(2006)은 한국어 텍스트에서 나타난 헤지 유형을 구분하면서 이 범주의 헤지 표현들을 ‘정확성의 회피’와 ‘일반화의 방지’로 분류하였다. ‘정확성의 회피’는 프린스 외(1982) 모형의 ‘대략어’, ‘일반화의 방지’는 ‘적응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반화의 방지를 위해 사용된 헤지 표현들의 한국어 표현은 ‘중의 하나’, ‘일종의’, ‘한’, ‘크게’, ‘비교적’, ‘그리’ ‘다소’ 등이 있다. 이것은 명제 내용이 전체의 일부임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로 일반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독자가 명제 내용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그것이 출현한 맥락과 화맥을 살펴보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된다(신명선 2006: 161).

‘정확성의 회피’의 한국어 표현으로는 ‘거의’, ‘약’ 등의 어휘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명시적인 수량적, 수학적 개념으로써가 아니라 상대적 주관적 개념으로 작동하여 독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또한 헤지 유발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2 저자의 명제에 대한 책무

이 범주는 인식양상과 관련한 어휘들을 통해 가능과 추측만을 제시하여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과, 명제 내용과 저자 사이의 거리를 제시함으로써 명제적 내용이 단지 저자의 의견일 뿐임을 드러내는 방식,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명제 내용은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저자의 판단을 유보하는 방식

연구에서는 이 영역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4) 프린스 외(1982: 85)는 논평을 완화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방식에 따라 헤지를 크게 근사값(예, sort of)과 방패어(예, I think)로 구분하였다.

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능성이나 추측만을 제시함으로써 판단을 적극적으로 유보하게 하는 방식을 살펴보자. 영어로는 양상 조동사(Modal verb, 예:may, might, should 등), 형용사적 양상표현(Adjectival modal expression, 예:be possible that), 양상부사(Modal adjunct, 예:perhaps, maybe, probably), 양상동사(Modal lexical verb, 예:appears, seem)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에서는 의존 명사 ‘수’, 어미 ‘겠’, ‘아마도’, ‘듯하다’ 등과 같은 단어들 이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인식을 나타내는 어휘가 1인칭명사와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I think’, ‘In my opinion’, ‘As far as I am concerned’가 해당되며 한국어 표현으로는 ‘나는 생각한다’ 류의 문장들이 이에 해당한다. 명제 내용이 주체화됨으로써 저자는 제시된 명제 내용에 대한 참 거짓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명제 내용과 저자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헤지가 유발된다. 이 유형은 명제 내용이 저자의 발언이 아님을 보임으로써 저자는 해당 명제적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이런 헤지는 객체화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영어에서는 3인칭명사와 인식증거동사(epistemic evidential verb, 예:indicate, suggest, speculate, and show)들과 ‘according to’ 류, 행위자없는 수동문장(agentless passive sentence, 예:be said) 등이 있으며, 한국어 표현에서는 ‘에 따르면’, ‘가 말하기를’ 등이 있다.

프린스 외(1982)는 이 세 가지 하부 유형을 합쳐 ‘방패어(shield)’로 칭한다. 이 중 앞의 두 하부 유형 즉 ‘가능과 추측’을 나타내는 부분과 ‘주체화’ 부분을 합쳐 ‘개연적 방패어(Plausibility Shield)’로, ‘객체화’를 ‘기인된 방패어(Attribution Shield)’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개연적 방패어’가 저자의 단언이 개연성 있는 이유를 바탕으로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면, ‘기인적 방패어’는 논의 중에 있는 명제에 대한 책임을 저자가 아닌 인용된 자에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설명한다. 신명선(2006)의 한국어 분류에서는 이들을 각각 ‘가능과 추측’, ‘드러내기’와 ‘숨기기’로 분류한다.

### 2.3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

이 범주의 헤지 표현은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에 의해 제시된 공손성 이론(Politeness Theory)을 바탕으로 둔 화용론적인 모형과 관련 있다. 이들은 공손성을 ‘적극적 공손성’과 ‘소극적 공손성’으로 구분했는데, 헤지는 ‘소극적 공손성’에 가깝다. ‘소극적 공손성’은 방해받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지키거나 자신의 의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청자의 소극적 체면 유지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전에 프레이저(Fraser 1980)에 의해 발화행위가 유발할 수도 있는 적대심이나 귀에 거슬림 등을 완화하는 표현으로도 설명되었다(마크카넨과 슈레더1994: 4 재인용). 이런 유형의 구체적인 예로는 ‘I should apologize for not attending to the meeting’의 문장을 들 수 있는데, ‘should’, ‘could’와 같은 양상조동사가 ‘promise’, ‘advise’, ‘request’와 같은 수행동사들의 힘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신명선(2006)의 분류에서는 이런 ‘수행성 완화’의 표현 외에 ‘부정’표현을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논게 아닐까 싶다’, ‘많지 않은 형편이다’, ‘을 수 없다’ 등은 명제가 갖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내포하여 저자의 견해를 보다 공손한 방법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명선(2006: 167)은 한국어 학술 텍스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유형으로 이 ‘부정’ 표현을 꼽는다. 프레이저(2010)의 모형에서도 부정 표현은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 범주의 하나로 설명된다.

이후의 텍스트 분석을 위해 지금까지의 헤지 유형에 대한 범주 구분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예시들을 제시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구체적인 어휘적 통사적 형태적 예를 위해, 영어 표현은 프린스 외(1982)의 제시 표현을, 한국어 표현은 신명선(2006)의 표현들을 바탕으로 정리되었다.

범주	담화적 의미	구체적 어휘적 통사적 형태의 영어 예시	영어 표현에 대응되는 한국어 예시
명제적 내용	일반화의 방지	sort of, kinds of, rather one of, a little bit, somewhat, somehow (한정사 류)	‘-종의 하나’, ‘일종의’, ‘한’,
		(예문) ‘A chicken is sorts of	(예문) ‘그것은 일종의 전략

	정확성의 회피	bird'	적 개념 때문이다.'
		approximately, roughly, about, often, occasionally, generally, usually (정도와 양, 수, 시간에 서의 근사치) 한정사 (예문) 'Fever is present in about a third of cases.'	'거의', '주로', '그리', '다소', 등  (예문) '산업화의 노력 역시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다.'
명제에 대한 저자의 책무	가능과 추측	may, might, can, could, would, should (양상조동사류) (예문) 'Such a measure might be more sensitive to changes in health.'	의존 명사 '수', 어미 '겠', '아마도', '듯하다.', 등
		to seem, to appear (인식적 양상동사) (예문) 'The study appears to have strengths.'	
		possible, probable, un/likely (예문) 'It is likely to result in failure.'	
		assumption, claim, possibility, estimate, suggestion (인식적 양상동사의 명사 형태) (예문) 'We estimate that one in five marriages end in divorce.'	
	주체화	perhaps, possibly, probably, practically, likely, presumably, virtually, apparently (부사류) (예문) 'There is, perhaps, a good reason why she chose to write in the first person.'	(예문) '은유가 수사법의 차원에서 취급되는 것은 아마도 은유에 대한 전통적 개념이 수사학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 차이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We or I believe, to our knowledge, it is our view that, we feel that (도입구) (예문) 'We believe that there is no simple explanation.'	'나는 생각한다.', '내 의견으로' 류  '나는 그것은 문화교육과정이라 생각한다.'

	객체화	to believe, to assume, to suggest, to estimate, to think, to argue, to indicate, to propose, to speculate (3인칭 주어를 가진 평가성을 드러내는) 양상동사류	‘라고 알려져 있다.’ 류 ‘에 따르면’ 류 ‘(3인칭주어)는 믿는다.’ 류
		(예문) ‘Hallidays believe that there is no simple explanation.’	(예문) ‘정치적 우호관계는 단시간 안에 진전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It is said, It is believed, (행위자 없는 수동태류)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의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제침체로부터 발단되었다.’
		(예문) ‘It is said that Koreans are hot-tempered’ According to S shows (예문) ‘According to Chomsky, language play a role in...’	‘김영선(1982)은 현재의 국제 정치 불안은 경기침체로부터 발단이 되었다고 평가한다.’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	수행성 완화	I want to .. I regret inform you that.. May I suggest that.. Do you mind if. (예문) ‘May I suggest that you close the window?’	‘곤란할 것이다.’, ‘우리가 있다’,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려가 있다.’, 등 (예문) ‘담화표지 기능의 습득과정을 살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정 표현	we cannot deny not ... (예문) ‘The policy is not too much unacceptable...’	‘않은’, ‘없는’ 등 (예문) ‘논저들이 많지 않은 형편이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표 1> 헤지의 하부 유형과 영어와 대응 한국어 표현 예시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헤지의 하부 유형은 그것의 담화적 의미에 따라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사실, 헤지 표현이란 형태론적이거나 통사론적 측면에서 접근되는 영역이 아닌 의미론적 차원의 영역으로 객관적인 어휘적, 통사론적 형태의 구분이 어렵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의 대조 분석에서 영어의 형태적 통사적 구분이 한국어에서 똑같은 형태로 대응되지 않는다. 따라



서 <표 1>의 구분은 본 연구의 텍스트 분석을 위해 영어 원천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헤지 표현들과 이에 대응하여 나타날 수 있는 한국어 표현들을 중심으로 정리되었음을 밝혀둔다.

## 2.4 헤지의 기능

학술 저널<sup>5)</sup>, 정치 연설, 사실과 같이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염두해 둔 설득적 텍스트에서 헤지 표현은 중요한 소통 전략으로 기능한다(Nugroho, 2002: 17). 셀라저-메이어(1995)의 연구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 설득적 텍스트에서 헤지 표현의 기능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헤지 표현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대를 줄이기 위해 또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이 맞닥뜨리게 될 체면위협을 잠재성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은 헤지 표현이 갖는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한 확신의 축소, 책임 회피, 모호성, 머뭇거림 등의 특징과 관련 있다. 텍스트 생산자들은 사실과 반대되는 증거 발견의 가능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거리를 두기 위해 헤지 표현을 이용한다고 설명된다(셀라저-메이어 1995: 129).

둘째, 헤지 표현은 저자의 명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헤지 표현이 명제에 대한 저자의 확신여부를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기능한다는 것이다.

셋째, 헤지 표현은 의사소통상황을 위한 하나의 공손전략으로 기능한다. 이 기능은 마이어스(Myers 1989)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헤지 표현이 갖는 가장 보편적인 기능으로 손꼽는 부분이다(셀라저-메이어 1995: 129 재인용). 헤지는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단언적이기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책을 넘어 저자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저자의 입지를 구축하면서 독자와의 원활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인관계적 전략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헤지 표현은 어느 정도 관습화된 글쓰기의 스타일로 볼 수 있

5) 학술저널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보적 텍스트로 분류될 수 있으나, 자신의 이론을 기존의 학술세계에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설득적 텍스트로 분류되기도 한다. 헤지 연구에서는 대표적 설득적 텍스트로 학술 저널, 정치 연설을 꼽고 있다(Hyland 1998).

다. 마이어스(1989)는 그 텍스트의 장르에 적합한 헤지 표현은 그 장르가 가진 기존의 글쓰기스타일로 보이게끔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뉴스보도와 같은 텍스트의 경우 그 문화 속에 확립된 장르의 특징을 따르지 않는다면 독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갖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텍스트 행위의 목적 달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

### 3. 헤지 표현 번역을 위한 고려사항

크라니치(2011)는 헤지 표현의 번역을 하우스가 제시한 ‘내재적 번역(covert translation)’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내재적 번역이란 목표 텍스트가 원천 문화 또는 그 독자에 특별히 얽매이지 않으면서 “원천 텍스트가 그 언어 문화적 틀과 담화세계에서 수행한 기능을 번역된 텍스트에서 재창조, 재생, 또는 표상하는 번역(하우스 1997: 114)”을 말한다. 따라서 내재적 번역에서는 하우스가 정의한 문화적 여과 장치(Cultural filter)라는 것을 통해 문화적 요소를 수정하여 목표 텍스트가 번역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크라니치 2011: 78).

하우스(1997, 2006)는 헤지 표현의 사용빈도가 낮은 독일어에서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영어로의 번역에서 번역가가 목표 텍스트의 언어적 문화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 텍스트의 저자가 의도한 반응의 등가를 이루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번역에서 헤지 표현과 관련한 목표 문화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자의 설득이라는 텍스트의 목적 성취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헤지 표현을 대인관계적 현상만이 아닌 관념적 현상까지 포함시키는 보다 포괄적인 범주로 접근한다면 번역가가 헤지 표현을 추가하거나 생략하는 것은 명제적 내용에 대한 저자의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바람직하지 않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헤지 표현의 번역 문제는 내재적 번역이나 외연적 번역이냐의 특정한 번역 방식으로써가 아니라 해티프와 메이슨(Hatim & Masion 1990)이 주장하는 의사소통적 맥락, 화용론적 맥락, 기호학적 맥락을 적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먼저 헤지 표현의 의사소통적 맥락은 우선 ‘누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가’를 반영한 담화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본 바탕으로 한다. 담화관계란 할리데이(Halliday 2004)가 주장하는 상위언어기능 중 대인 관계적 기능의 담화적 의미를 말한다. 번역가는 이런 담화관계의 맥락에서 헤지 표현을 우선 이해할 수 있다. 의사소통에 참여한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에 따라 헤지 표현은 텍스트에 보다 더 자주 나타날 수도, 덜 나타날 수도 있으며 그 의미 정도를 보다 강하게도 약하게도 변화시킬 수 있고,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보이게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천 텍스트의 담화관계에 의해 설정된 헤지 표현 전략은 목표 텍스트에서 그 의사소통에 참여하게 되는 담화 참여자들에 대한 고려를 통해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명제적 내용 차원의 헤지 표현들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면, 그 의사소통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에 대한 고려 역시 중요해진다. 예를 들어, 정보의 정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과학학술텍스트 경우, 명제적 내용 범주의 헤지 표현의 전이는 그 텍스트의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 있다. 따라서 담화영역에 대한 고려 역시 헤지 번역 과정에서 세심히 고찰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헤지와 관련한 화용론적 맥락은 협력원리와 공손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번역가가 문화적, 언어적 전통이 상이한 두 언어를 중개를 할 경우,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이런 전략이 문화 마다 다르다는데서 기인된다. 그 예로 영어에서의 공손성은 헤지 표현 추가와 같은 소통 전략의 문제, 즉 공손어법의 문제로 접근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공손어법과 같은 의사소통 전략 외에도 경어법 체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공손성이 표현 가능하다. 따라서 영어의 경우는 공손전략으로서의 헤지 표현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두 문화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번역가는 헤지 표현이 갖는 약화와 같은 상호작용 전략뿐만 아니라 공손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목표 문화에 맞추어 재맥락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호학적 차원의 맥락은 상호텍스트성의 측면에서 이해된다. 사실과 칼럼같은 설득적 텍스트에서는 이런 기호학적 층위의 등가가 중요하다. 번역가가 같은 장르안의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목표 문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면 부자연스러운 번역이 되기 쉽다. 또한 텍스트 속의 어휘선택이나 저자의 태도는 그들의 사회 이데올로기적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텍스트가 속한

장르의 담화적 공통 자질을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Hatim & Masion 1990).

이런 의사소통적, 화용론적, 기호학적 맥락 외에도 헤지 표현의 번역 문제는 번역가 또는 번역가가 속한 기관의 이데올로기와 같이 원천 텍스트 저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다. 사실 설득적 텍스트와 관련한 번역 텍스트의 생성은 오로지 번역가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감수자 편집자 등 여러 참여자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늘 재맥락화과정을 겪기 마련인 것이다. 이런 재맥락화과정에서 헤지 표현은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방식 중 하나로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번역가는 헤지 표현의 텍스트 재맥락화를 또 다른 글쓰기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4. 헤지 표현의 번역 전략

번역가에 의해 선택되는 헤지 표현의 실제 전략<sup>6)</sup>들을 들여다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Newsweek*에서 추출된 기사의 원본과 그 번역본을 대상으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텍스트는 사실이나 칼럼과 같이 저자의 의견이 피력되어 있는 기사들로 2011년에서 2012년의 나온 기사 중 무작위로 8개를 선별하였으며 총 단어 수는 대략 6500개이다. 번역본은 『뉴스위크』 한글본으로 8개의 번역기사이다.

텍스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헤지 표현의 번역 전략은 크게 일치, 생략, 추가, 굴절로 구분될 수 있었다. 각 전략별 빈도수와 굴절에서의 유형별 출현빈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유형	하부 유형	전략별 출현빈도									
		일치	생략	추가	굴절	합계	UN	H	L	S	O
명제적	일반화	14	3		3	20	1	2			

6) 헤지 표현에 대한 번역과정에서의 처리는 번역가에 의한 의식적인 선택의 문제라기 보다는 텍스트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명시적인 설명을 위해 번역 전략의 측면에서 헤지 표현을 설명하였다.

내용	정확성	20	2	1		23				
명제에 대한 저자의 책무	가능과 추측	39	20	9	11	79	6	2	2	1
	주체화	8	3	1	1	13			1	
	객체화	39		1	8	48	8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	수행성완화	5	1		8	14		7	1	
	부정표현	4	1	3		8				

UM: Unmarked(무표적), H: Higher(강해진 확신), L: lower(약해진 확신), S: More Subjective(보다 주관적), O: More Objective(보다 객관적)

〈표 2〉 각 전략별 출현 빈도와 굴절의 유형별 출현 빈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적인 헤지 출현 빈도는 명제에 대한 저자의 책무(140번), 명제적 내용의 차원(43번),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22번) 순으로 높았다. 명제에 대한 저자의 책무는 전체의 68.3%에 해당하며, 이 중 ‘가능과 추측(79번)’이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헤지 표현 유형으로, 헤지 출현 빈도 전체 중 38.5%를 차지한다. 따라서 분석의 대상이 된 원천 텍스트에서 ‘가능과 추측’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된 헤지 유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략 별로는 일치(129번), 굴절(31번), 생략(30번), 추가(15번)의 순으로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굴절의 유형의 경우도 무표적인 전환이 대략 절반을 차지한다. 이것은 본 분석 텍스트에서는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헤지 표현의 상당부분이 목표 텍스트에서 상응하거나 유사한 한국어 표현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런 헤지 표현 출현 빈도가 내포하는 의미는 각 헤지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전략과 구체적인 헤지 유형과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전략 별 구체 사항들을 살펴보자. 먼저 일치 전략은 원천 텍스트의 헤지 표현이 목표언어에서 같은 기능의 언어적 장치로 등가를 이루는 것이다. 이 전략은 명제적 내용의 변환이나 명제에 대한 저자의 태도, 저

자와 독자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원천 텍스트의 헤지 표현이 목표 텍스트에서 그 표현의 갖는 확신도 측면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2>

번호	유형	텍스트	예 문
a	명제에 대한 저자의 책무	ST	You <u>might</u> be laughing already, but the concept has played a crucially important role in US history. (2011 Aug. 7)
		TT	벌써 냉소를 지을지 모르지만 이 개념은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b	명제적 내용	ST	Investors were fleeing for safety <u>pretty much everywhere</u> (2011 Aug. 15-a)
		TT	거의 어디서나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달아났다.

<예시 2>에서 a는 원천 텍스트에서 저자의 명제에 대한 확신을 유보한 표현 중 ‘가능과 추측’의 조동사 ‘might’ 이 목표 텍스트에서 ‘지 모르지만’으로 번역된 경우로 명제에 대한 저자의 확신 정도의 측면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일치의 전략은 담화적 의미로 보았을 때 b의 경우처럼 헤지 유형 중 헤지 표현의 생략이나 추가 또는 굴절과 같은 전이가 명제적 내용의 변환을 야기할 수 있는 ‘일반화와 방지’나 ‘정확성회피’에서 가장 일반적인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또 다른 전략은 생략으로 원천 텍스트의 헤지 표현을 목표 텍스트에서 생략해 버리는 전략이다. 생략의 전략은 보다 간결한 메시지 전달을 목표로 한 번역가에 의해 채택될 수 있으며 구체적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3>

번호	유형	텍스트	예 문
a	명제에 대한 저자의	ST	The weight of the job <u>can</u> be hard to imagine, says Strobe Talbott, president of Brookings Institution... (2011. Mar. 20)
		TT	대통령자리의 무게는 상상하기 힘들다고.....스토브로브 텔벳

	책무		브루킹스 연구소 소장이 말했다.
b	명제적 내용	ST	.....with Ichiro Ozawa, the DPJ's former president, who remains piqued at his compatriots for watering down <u>many of their 2009 campaign promises</u> , (2011. Sep. 5)
		TT	오자와는..... 2009년 민주당 선거 공약을 당원들이 축소시켰다며 총리와 각을 세운다.

<예시 3>에서 a는 인식적 양상조동사 ‘can’을 목표 텍스트에서 생략하여 메시지 내용전달에 초점을 맞춘 경우로 목표 텍스트 독자는 명제적 내용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b는 원천 텍스트에서 독자가 명제에 대해 일반화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채택된 ‘many’를 목표 텍스트에 생략해 버린 경우다. 본 텍스트 분석 결과, 생략 전략은 ‘가능과 추측’에서 가장 자주 나타났으며(20번), ‘주체화’의 전략에서도 3번이나 생략되었다. 따라서 ‘객체화’를 제외한 ‘저자의 명제에 대한 책무’ 부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전략은 헤지 표현의 추가이다. 이 전략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명제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언어(예로 독일어)에서 독자와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중히 여기는 전달 방식을 갖는 언어(예로 영어)로의 번역에서 자주 채택되는 전략이기도 하다(마크카넨과 슈레이더 1989: 176). 또한 헤지 표현의 추가는 공손성이 주시되는 목표 문화로의 번역에서 발견될 수 있는 전략이다(마크카넨과 슈레이더 1989: 177).

<예시 4>

번호	유형	텍스트	예 문
a	명제에 대한 저자의 책무	ST	It's psychological or biological: he doesn't have the tough-guy gene. (2011.Mar. 20)
		TT	심리학적 또는 생물학적 측면에서 그에게는 터프가이 유전자 없다는 <u>이론도 있다</u> .
b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	ST	The middle class gets off lightly too. (2011. Aug. 24)
		TT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u>크지 않다</u> .

<예시 4>에서 a는 목표 텍스트에서 원천 텍스트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 객체화의 표현을 첨가시켜 명제의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 b는 원천 텍스트에서 없는 부정표현을 목표 텍스트에서 추가함으로써 부정적인 내용을 보다 완화된 표현으로 전달하고 있다. 추가 전략의 경우 ‘가능과 추측’ 유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났으며 비율로 보면 ‘부정 표현’에서 주로 채택되는 전략이기도 하다. 이 두 부분을 제외하면 본 텍스트 분석 결과에서 이 전략은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전략은 해지 표현을 추가나 생략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화자의 확신이나 객관성의 정도를 달리 나타냈거나 아예 다른 담화 화용론적 기능을 하는 해지 유형으로 변환시킨 굴절이다. 이 전략의 선택으로 명제는 보다 확신이 강하거나 약하게 또는 보다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형태로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또한 그 변화를 감지할 수는 있으나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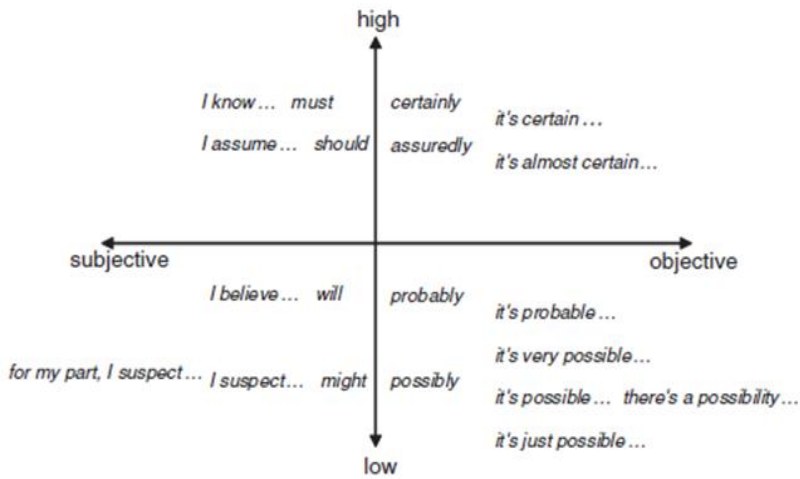
<예제 5>

번호	유형	텍스트	예 문
a	명제에 대한 저자의 책무	ST	Otherwise, politics <u>is going to</u> transform him into a nicely intentioned one-term president. (2011. Aug. 7)
	TT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가 그를 바꿔 의도만 좋았던 단임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	
b	저자와 독자와의 관계	ST	First, <u>we need to</u> support the growth of the world’s new middle class and foster agreements that allow American and European companies to compete in Asia’s booming consumer markets. (2011.May. 15)
	TT	전 세계 새로운 중산층의 성장을 지원하고, 구미 기업들이 아시아의 성장하는 소비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를 장려해야 한다.	
c	명제에 대한 저자의 책무	ST	Or we <u>could</u> “restructure” the entitlements, as former Fed chairman Alan Greenspan has suggested—also a default of sorts. (2011. Aug. 24)
	TT	또는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제안했듯이 사회복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법도 있다.	



<예제 5>에서 a는 거의 확실시 되는 미래에 사용되는 ‘be going to’ 표현이 목표 텍스트에서 확신의 정도가 보다 낮은 ‘일지 모른다’로 번역되어 저자의 명제에 대한 판단에서 확신의 정도가 변환되었다. b의 경우는 ‘need to’란 수행성 완화를 가져오는 헤지 표현이 목표 텍스트에서 보다 확신의 정도가 높은 ‘해야 한다’로 나타나 저자의 태도를 보다 단언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c의 경우는 가능과 추측을 나타내는 헤지 표현인 ‘could’가 비슷한 통사적 어휘적 특징을 지닌 표현이 아닌 것으로 번역되었지만 그 변화의 정도를 정확히 감지할 수 없는 무표적(Unmarked) 변환의 전략을 채택된 경우이다. 이 ‘굴절’ 전략은 다른 전략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능과 추측’ 유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났지만 비율의 측면에서 보면 ‘객체화’ 전략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변화의 정도를 확실히 측정할 수 없는 ‘무표적’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헤지 표현에 대한 이 네 가지 번역 전략은 모두 저자의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마틴과 화이트(Martin & White 2005)가 제시한 의미(value)와 지향(orientation)에 관한 위상학적(Topological) 고려를 바탕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림 1〉 의미와 방향에 관한 위상학적 관측  
(Martin & White 2005: 17)

마틴과 화이트(2005)는 이들 연구의 관점이 유형학(Typology)에서 위상학

(Topology)으로의 관심 전이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표명하면서 양상을 예로 들어 위상학적 관측을 설명한다. 양상 표현들을 그것의 의미와 방향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상(Cline)에 놓는다면 <그림 1>처럼 객관성과 주관성 그리고 등급화된 의미(graded value)를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고한다(Martin & White 2005: 16). 다시 말해, <그림 1>에서 보다 오른 쪽에 위치한 표현들은 왼쪽에 위치에 있는 표현들 보다 객관적 태도로 해석되며, 위쪽에 위치한 표현들은 아래쪽에 놓인 표현들보다 더 확신의 정도가 강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준을 참고로 하였을 때, 헤지 표현의 번역은 결국 명제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방향으로 전환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예시 6>

번호	방향	텍스트	예 문
a	무표적	ST	Of the Big Three, as <u>Sergei Plokhly shows</u> in his riveting study <i>Yalta: The Price of Peace</i> , Roosevelt alone truly believed in the dream of a world parliament. (2011. Sep 25)
		TT	하버드대 교수 세르게이 플로키가 저서 ‘알타: 평화의 대가 (Yalta: The Price of Peace)’에서 <u>보여주듯이</u> 이 빅3 중에서 루스벨트만이 세계 의회의 꿈을 믿었다
b	보다 단언적	ST	Both views <u>may contain some truth</u> . (2011. Aug. 15-b)
		TT	두 견해 모두 <u>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다</u>
c	덜 단언적	ST	Troubled assets were removed from the banks’ books at face value, to be replaced by reserves on which the Fed pays interest to the banks, <u>rewarding</u> them for not making loans. (2011. Aug. 15-a)
		TT	부실자산들은 은행 장부에서 액면가로 처분됐으며 그 자리를 FRB가 이자를 지급하는 지불준비금으로 대체한다. 대출을 하지 않는 데 대해 은행에 <u>보상을 해주는 셈이다.</u>
d	보다 객관적	ST	All the same, <u>we still can’t know</u> the full consequences of Bernanke’s unprecedented intervention... (2011. Aug. 15-a)
		TT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냉키의 전례 없는 개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모두 드러나지 않았다.
e	보다 주관적	ST	The policy is <u>believed to attack</u> conservative parties
		TT	<u>나는 그 정책이 보수당을 겨냥하고 있다고 본다.</u>

<예시 6>의 a처럼 ‘무표적’ 변화는 일치 전략이나 ‘무표적 굴절’에 의해 야기된다. 물론 헤지 표현의 생략이나 추가가 목표 텍스트에서 확신이나 공손성 그리고 저자의 태도 변화에 눈에 띄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도 있다. b의 경우는 원천 텍스트에 나타난 일반화 방지와 ‘가능과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중 하나를 생략함으로써 목표 텍스트의 독자는 명제에 대한 저자의 태도를 원천 텍스트에서 보다 단언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c는 이와는 반대로 목표 텍스트에서 ‘가능과 추측’의 표현에 해당하는 ‘셈이다’의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원천 텍스트의 저자의 확신도를 보다 낮춘 경우이다. d는 ‘주체화’의 표현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보이게 만들었다. 반면 e의 경우는 주체적 표현을 목표 텍스트에서 추가함으로써 이 명제에 대한 판단에 저자가 개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텍스트 분석 결과를 보면 원천 텍스트에서 목표 텍스트로의 태도 변화는 다음의 <표 3>처럼 요약될 수 있다.

유형	하부 유형	저자의 태도 전환 방향(영→한)			
		덜 단언적	보다 단언적	보다 주관적	보다 객관적
명제적 내용	일반화		✓		
	정확성		✓		
명제에 대한 저자 책무	가능과 추측		✓		
	주체화				✓
	객체화				
저자의 독자 관계	수행성완화		✓		
	부정표현	✓			

<표 3> 하부 유형별 저자의 태도 전환 방향

먼저 명제적 내용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반화의 방지’나 ‘정확성의 회피’ 모두에서 보다 단언적인 태도로 바뀌는 경향이 있었다. 보통 ‘명제적 내용’의 변화는 정보의 참 거짓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본 텍스트 분석에서는 기호학적 맥락에서 원천 텍스트와 목표 텍스트에서 선호되는 방식의 차이로 야기된 변화로,

명제의 참 거짓에 변화를 주지는 않아 보인다.

명제 내용에 대한 저자의 책무에서의 변화에서 번역가는 ‘가능과 추측’의 표현을 생략하는 쪽으로, 그리고 보다 객관적 의미를 담는 쪽으로 변환되는 경향(‘주체화’의 생략의 영향, ‘객체화’는 변화 없음)이 있었다. 이것은 저자의 명제에 대한 확신의 정도에 변화를 주어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나 의도를 전환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와의 관계에서의 변화는 ‘수행성완화’ 표현은 보다 단언적인 것으로 반면 ‘부정표현’은 원천 텍스트에 없던 것을 목표 텍스트에서 추가함으로써 보다 덜 단언적인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목표 텍스트에서 명령이나 요청과 같은 화행에서 보다 더 단언적인 태도로 전환시켰으며 부정적인 명제적 내용을 전달을 위해서는 보다 더 완곡한 표현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 5. 결론과 제언

설득적 텍스트에서 명제적 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달하는가는 텍스트 행위의 목적 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효율적 전달 방식의 하나인 헤지 표현은 대부분 설득적 텍스트에서 의사소통의 전략으로 자주 채택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특히 영어와 한국어와 같은 이질적인 문화 간의 의사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번역가에게 명제의 전달 방식 중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헤지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연구는 번역가가 이해해야 할 헤지 개념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개괄하고 번역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고려사항들을 조사하였으며 뉴스매거진 텍스트의 예를 통해 번역전략과 그 전략의 담화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번역가의 헤지 표현의 번역전략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로는 첫째, 의사소통적 등가의 측면에서 저자와 독자와의 담화관계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추론되었다. 둘째, 화용론적 측면에서는 이런 담화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협력원리와 공손성이, 마지막으로 기호학적 측면에서는 텍스트의 장르적 관습이 주요한 작용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텍스트 분석 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이런 요인 하에 실제 번역가가 취하게 되는 전략은 크게 일치, 생략, 추가, 굴절로 분류되었다. 이런 전략에 따라 목표 텍스트에서 각 각의 담화적 의미가 보다 단언적으로, 또는 덜 단언적으로, 아니면 보다 객관적으로 보다 주관적으로 전이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번역가에 의해 선택된 헤지 표현의 번역전략 중 ‘일반화의 방지’, ‘정확성의 회피’와 같은 명제적 차원의 유형과 명제 대한 저자의 책무 차원의 유형 중 ‘가능과 추측’, 그리고 명제와 저자와의 관계 차원 중 ‘수행성 완화’와 같은 유형에서 생략과 굴절과 같은 전략의 선택은 『뉴스위크』지의 태도를 전반적으로 원본 텍스트 보다 더 단언적으로 전환시켜놓았다고 추론할 수 있었다. 또한 명제에 대한 저자의 책무 차원 중 ‘주체화’ 표현들의 생략은 해당 텍스트의 태도를 보다 객관적인 태도로 보이도록 만드는 데 일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번역가는 이런 헤지 표현에 대한 번역전략 설정의 결과가 어떻게 될 지를 예측하고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헤지 개념의 다양한 견해와 추상적이고 에두르는 특징과 의미론적 현상에 대한 정량적 분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연구 분석결과의 상당 부분을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번역연구의 측면에서 헤지 개념이 어떻게 접근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따라서 이 후에는 정확한 정량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그런 연구를 통해 헤지와 관련한 영한번역 보편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번역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은 무엇인지를 밝혀 낼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개념 정리를 바탕으로 한영번역에도 적용하여 한영번역을 위한 헤지 표현 전략이 영한과 어떻게 다른지도 밝혀낸다면 번역업무의 기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아 (2011) 「<주주에게 보내는 편지>의 번역 및 비번역 텍스트의 텍스트 공손성 분석 텍스트의 공손성」, 『통번역학연구』 15: 221-249.

- 마승혜 (2011) 「장르기반 평가어 한영번역 교육」, 『번역학연구』 12(4): 69-97.
- 신명선 (2006) 「국어 학술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 151-180.
- 이주리에 (2011) 「기사문 번역의 재맥락화 양상에 대한 일고찰」, 『번역학연구』 12(3): 157-184.
- 이창수 (2009) 「영어 관광안내서의 평가어 비교분석연구」, 『영미연구』 20: 187-205.
- Brown, Penelope & Stephen C. Levinson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P.
- Fraser, Bruce (1980) 'Conversational mitigation', *Journal of Pragmatics* 4(4): 341- 350.
- Fraser, Bruce (2010) 'Pragmatic Competence: The Case of Hedging', *New Approaches to Hedging*, Kallenbock, Gunther & Mihatsch, Wiltrud & Schneider, Stefan (ed.), Bingley: Emerald.
- Halliday, Michael Alexander Kirkwood & Matthiessen, Christian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 edition), London: Arnold.
- Hatim, Basil &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House, Juliane (1997)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 A Model Revisited*, Tübingen: Gunter Narr Verlag.
- House, Juliane (2006) 'Communicative Styles in English and German', *European Journal of English Studies* 10(3): 249-267.
- Hyland, Ken (1998) *Hedging in Scientific Research Articl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yland, Ken (2007) *Metadiscourse*, London New York: Continuum.
- Kranich, Svenja (2011) 'To Hedge or Not To Hedge: the Use of Epistemic Modal Expressions in Popular Science in English Texts', *Text Talk: An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Language Discourse Communication Studies* 31(1): 77-99.
- Lakoff, George. (1973) 'Hedges: A Study of Meaning Criteria and the Logic

- of Fuzzy Concept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2(4): 458-508.
- Myers, Greg. (1989) 'The Pragmatic of Politeness in Scientific Articles', *Applied Linguistics* 10(1): 1-35.
- Markkanen, Raija & Hartmut Schröder (1989) 'Hedging as a Translation Problem in Scientific Texts', *Special Languages: From Human Thinking to Thinking Machines*, C. Lauré & M. Nordman (eds), Clarendon: Multilingual Matters, 171-179.
- Markkanen, Raija & Hartmut Schröder (1997) 'A Challenge for Pragmatics and Discourse Analysis', *Hedging and Discourse* Markkanen, Raija and Schröder, Hartmut (eds), Berlin & New York: Walter de Gruyter, 3-18.
- Martin, James & White, Peter (2005)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London: Palgrave.
- Nugroho, Aylanda (2002) 'The Contradiction of Certainty and Uncertainty in Hedging and Its Implications to Language Teaching', *K@ta* 4(1): 17-22.
- Pisanski Peterlin, A. (2010) 'Hedging Devices in Slovene-English Translation: a Corpus-Based Study', *Nordic Journal of English Studies* 9(2): 171-193.
- Prince, Ellen E., Bosk, Charles & Frader, Joel (1982) 'On Hedging in Physician-Physician Discourse', *Linguistics and the Professions*, Robert di Pietro (eds), Norwood & New Jersey: Ablex, 83 - 87.
- Salager-Meyer, Françoise (1994) 'Hedges and Textual Communicative Function in Medical Written Discourse',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13(2): 147-171.
- Salager-Meyer, Françoise (1995) 'I Think that Perhaps You Should: A Study of Hedges in Written Scientific Discourse', *The Journal of TESOL France* 2(2): 127 - 143.

<분석 텍스트- *Newsweek* 추출 기사와 한글본 『뉴스위크』>

'Take Back the Future' (May 15, 2011) - 「글로벌 협력이 간절하다」 (2011.05.25 980호).

'The Untransformational President' (August 7, 2011) - 「오바마의 통치력 '빨간

- 불’」 (2011.08.17 991호).
- ‘The Monumental Fiscal Challenge’ (August 2, 2011) -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길」 (2011.08.24 992호).
- ‘Insolvency, Policy, and Economic Stress’ (a. August 15, 2011) - 「위기의 원인, 재무구조를 개선하라」 (2011.08.24 992호).
- ‘Will the west stabilize and grow again?’ (b. August 15 2011) - 「부채 줄이고 저축과 공공 투자 늘려야」 (2011.9.17).
- ‘You Were Expecting Statehood?’ (September 25, 2011) - 「유엔 존재의 역설」 (2011.10.05 997호).
- ‘Drinking From a Fire Hose’ (March 20, 2011) - 「위기의 순간, 지도자의 필요 조건」 (2011.03.30 972호).
- ‘The Sun Also Rises’ (September 5, 2011) - 「미꾸라지 총리의 꿈」 (2011.09.14 995호).



[Abstract]

### **Hedging in Persuasive Text: Approach from English-Korean Translation**

Shin, Jin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persuasive texts, how to effectively convey propositional contents can be a determining factor to achieving the aim of text act. Hedging is adopted as one of key communicative strategies for such efficient message delivery. It is important for translators to understand the role of hedges and motivations behind writers' hedgy language, and to make use of this knowledge in their translating work. Nonetheless, due to its culture-dependent and context-dependent quality, translators are highly unlikely to notice hedging expressions clearly and to translate them with strategic approaches. But translating work without understanding the meaning potential and function of hedgy language can easily lead to changing ST writers' attitude or often translators' own stance into being more assertive or less assertive; and more subjective or more objective. This paper attempts to apply this complicated but significant concept to translation study, aiming at helping translators much aware of hedging and thereby convey text messages with efficiency. To achieve the aim, this paper examines hedging expressions extracted from *Newsweek's* columns and their translations, regarded as one of key persuasive text types. The research result of this case study clearly shows how ST writers' or translators' attitudes can be influenced in their translation by the translators' strategic choice.

▶ Key Words: evaluation in text, hedge, hedging, writer's attitude, translating stance

신진원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번역학

sabinashin@hanmail.net

관심 분야: 번역이론,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2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6월 14일

게재확정일: 2012년 6월 19일